

# 한국사 6주차



2021년 1학기

## 오늘의 주제



### 고려의 대외교류와 무신집권기

#### 생각해볼 점

- 특수부락과 고려청자
- 고려의 계승의식과 묘청 평가
- 무신집권기 삼국 부흥운동



## 1. 고려의 통치체제

- 고려 특징 = 귀족 중심의 통치체제,  
중앙-귀족, 지방-향리(호장)

### 1) 중앙제도

- 문벌귀족: 국가 중대사 재추회의(중서문하성 고관+ 중추원 고관) 결정
- 관료 선출 => 음서 + 과거

① 음서제(문음, 공음): 조상의 공로로 관직(문무 5품 이상 관원)  
아들 => 아우, 조카, 수양아들, 손자, 외손자  
재상 가운데 50~60%가 음서출신.

② 과거제 : 958년 광종 때 후주 출신 쌍기 건의  
제술과(문장, 한문학)>명경과(경전이해)



## 2) 지방제도

- 호족 =>고려 지방세력(향리/호장),
- 호족의 지위 세습 =>본관제 : 지방+중국식 성
- 경> 도호부> 목> 군> 현>특수부락 (도는 순찰구역)  
특수부락: 향, 부곡, 소, 장, 처
- 거주지 차이 = 신분 차이, 조세, 공물 부담 차이

동(銅), 철, 자기, 종이, 목 등의 잡 소(所)는 공물을 징수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장인들이 괴로워서 도피하니 소사(所司)는 각 소의 별공(別貢)과 상공(常貢)의 많고 적음을 작성하여 아뢰어라.[고려사]

- 고려청자 제조지 = 후대 고려청자 제작법이 전수되지 않은 이유



◀ 청자 쌍사자형 베개(리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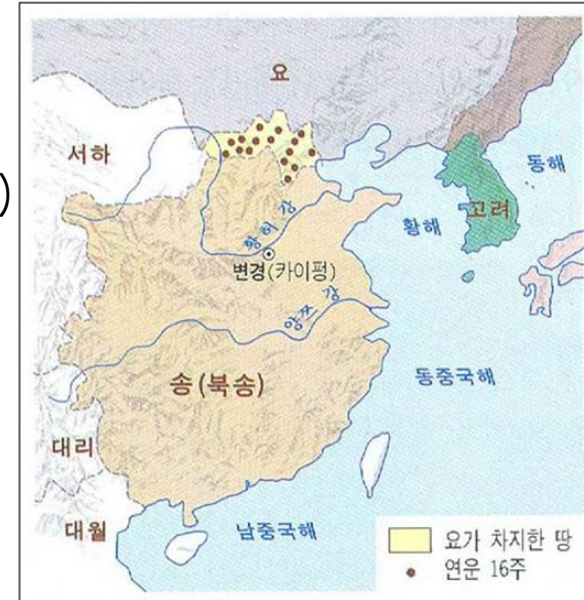
◀ 청자로 만든 기와(국립중앙박물관)  
1964년 전남 강진 사당리 이용희 집에서 출토(청자가마터)



## 2. 고려의 대외교류와 계승의식

### 1) 고려와 요

- 거란: 916 야율아보기 요 건국(거란족+해족+한족)  
937 후진을 원조한 대가=연운 16주(베이징 등)
- 중국: 907 당 멸망=>5대16국 분열기=>960 송 건국  
송, 연운 16주 탈환 시도  
985 고려에 원병 요청(고려, 거절)
- 고려: 고구려 계승, 고구려 영토 회복. 서경. 북진  
982 평북까지 진출



- 요, 1차 전쟁(993): 서희 외교담판

소손녕이 서희에게 말하기를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그대들이 침범해왔다. 또 (고려는)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바다를 넘어 송(宋)을 섬겼으므로 이제 군사를 이끌고 온 것이다. … 서희가 말하기를, “아니다. 우리나라가 곧 고구려의 옛 땅이다. 그러므로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하였으니 … 압록강의 안팎 또한 우리의 지역인데 지금 여진(女眞)이 그 사이에 도둑질하여 차지하고는 … 만일 여진을 내쫓고 우리 옛 땅을 되찾아 성과 요새를 쌓고 도로를 만들면 어찌 통교하지 않겠는가?([고려사]권94, 「열전」 7서희)

- 요, 2차(1010), 3차(1019) 강감찬, 귀주대첩  
=> 거란과 송: 형제의 맹세(송=>거란. 은 10만냥, 비단 20만필)
- 고려와 송 : 993이후 국교x, 민간교역 계속, 1071 국교재개



## 2) 고려와 금

1104 여진-> 고려 침략

1107 윤관, 별무반(17만) 편성 9성개척

1109 9성 거리 멀고 여진이 조공약속

이자겸 정권, 여진에게 9성 반환, 윤관 탄핵

1115 여진, 금나라 건국(아구다 阿骨打)

1126 이자겸, 금과 사대 관계

1127 금, 송 황제 2명 포로(정강의 변)=> 남송.

1128 고려, 송의 군사요청 완곡히 거절

동아시아의 정세



◀ 척경입비도(고려대박물관)  
고려의 땅이라는 비 세우는 모습







### 3) 서경천도운동(1135)과 그 평가

- 묘청, 서경(평양)으로 천도하려다 좌절
- 평가

당대: 반란

⇒ 일제강점기: 신채호 “조선 역사상 1천년 제일 큰 사건  
전통 vs 유교, 고구려 vs 신라

⇒ 오늘날

#### 자료 1 서경 세력의 주장



묘청 등이 (국왕에게) 건의하길, “신 등이 볼 때, 서경(평양) 임원역의 땅은 음양가들이 말하는 대화세(大華勢)라, 만약 이곳에 궁궐을 세워 옮기시면 가히 천하를 합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이 폐백을 바치고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주변 36개국 이 모두 신하가 될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였다. - “고려사” -

◀ 묘청(?~1135) 서경 출신 승려로, 정지상과 함께 신진 관리들이 중심이 된 서경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 자료 2 개경 세력의 주장

금년 여름에 서경 대화궁에 30여 개소나 벼락이 떨어졌으니 만약 그곳이 길한 땅이라면 하늘은 반드시 그와 같지 않을 것이니 그곳에 재난을 피하러 간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까? 하물며 지금 서경은 (추수가) 끝나지 않았는데 만약 거동하면 반드시 농작물을 짓밟을 것이니, 이것은 백성에게 어질게 하고 사랑하는 뜻이 아닙니다.

- “고려사” -



▶ 김부식(1075~1151) 개경의 문벌 귀족으로, 유교 이념에 따라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서경 천도를 반대하였다.



## 4) 대외무역

- 무역 활발: 해상무역상인출신 왕건, 대외무역 장려
- ⇒ 사상 개방적: 불교, 유교, 도교, 풍수지리, 민간신앙 등
- ⇒ 국가의례: 팔관회, 연등회
- ⇒ 사회: 왕실 근친혼, 여성 재산권, 세대주, 이혼재혼 허용  
신분상승 - 제한적으로 허용(과거, 무공...)



### \* 신안 바다 밑 보물...(JTBC 2019.6.13)



### 쌍화점

쌍화점에 쌍화를 사러 가니  
회회아비가 내 손목을 쥐여이다  
이 소문이 가게 밖으로 나거들랑  
조그만 새끼광대 네가 한말로 알리라

팔관회-100여명 외국상인 교류  
향료, 상아, 공작 등





### 3. 무신집권기

#### 1) 무신정변 (무신의 난) 1170

- 배경: 오랜 평화와 문벌귀족(문신)의 무신 차별, 홀대
- 발생: 1170.8.30 보현원에서 무신들 쿠데타.

#### 2) 무신정권(1170~1270)

- 1기, 2기, 3기





### 3) 무신집권기의 봉기

- 1172 창주, 성주, 철주의 민란(서북지역)
- 1173 김보당의 난(반 무신/의종복위)
- 1174 교종 승려의 난(반 무신)
- 1174 조위총의 난(반 무신/서북면)
- 1175 석령사의 난
- 1176 공주 명학소 망이, 망소이의 난(숯/특수부락)  
명학소 => 충순현(忠順縣)으로 승격.  
계속 공략 ~1177 진압
- 1182 전주 관노 죽동의 난
- 1193 김사미와 효심의 난(운문, 초전, 신라 부흥)
- 1198 만적의 난(노비)
- 1217 최광수(평양, 고구려 부흥)
- 1237 이연년 형제의 난(담양, 백제부흥)

무신집권기에 봉기가 왜 많이 일어났나?  
이 시대는 혼란한 시대인가? 기회의 시대인가?





#### 4) 무신집권기 봉기의 특징

##### 가) 반 무신정권

- 문신, 승려 등 반 무신세력의 불만
- 창주`성주`철주의 난, 김보당의 난, 교종 승려의 난, 조위총의 난, 석령사의 난

##### 나) 신분차별

- 지방제, 신분제 불만
- 공주 명학소 망이 망소이의 난, 전주 관노 죽동의 난, 개경 만적의 난

##### 다) 삼국 부흥운동

- 이상향으로서 옛 삼국 부흥운동, 현실불만=> 삼국 유민(遺民)의식 대두
- 삼한일통의식의 균열
- 김사미와 효심의 난, 최광수의 난, 이연년 형제의 난
- 그러나 1237 이연년 형제의 난 이후 삼국 부흥운동 x. 왜?



◀ 옛 국가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농민들:  
<https://www.youtube.com/watch?v=ivxGKopc5A8>